



5·18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은 13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묘지 추모분위기 물씬 참배객 '님을 위한 행진곡' 흘러 이달 추모인파 4만707명 기록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오월 영령이 잠든 국립 5·18민주묘지에 대학생들의 낭랑한 목소리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5·18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은 13일 5·18민주묘지에는 항쟁 역사를 새기고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가족, 연인, 단체 등 다시 찾아온 5월을 기억하는 추모객 발길이 이른 오전부터 이어졌다. 추모객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숙연한 표정으로 묘지 들머리 민주묘문에서 참

배단을 향해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옮겼다. 참배단 앞에서 두 손 모아 묵념하고 개인 묘역으로 이동해 산화한 열사를 기렸다. 윤상원 열사 묘소 주변에서는 학생모임 등 단체 참배객이 한목소리로 부르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꾸준히 흘러나왔다. 추모객들은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실제로 존재했던 항쟁을 되새기고자 5·18 묘지를 찾았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남작친구와 함께 5·18묘지를 찾은 직장인 이혜미(26·여) 씨는 “사대 문형무소처럼 잊지 않아야 할 역사가 갖은 장소를 데이트코스나 여행지 삼아 찾아다니는” “5·18 현장에 서기는 오늘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묘지를 참배하는 동안 고향이 광주인 아버지가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보고 아무 말씀 없이 평평 우쭐던 기억이 떠올랐다”라며 “옛 전남도청과 상무대 영창 터도 둘러볼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자라나는 아이에게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 찾아온 가족 추모객도 눈에 띄었다. 15살 아들, 7살 딸과 함께 전북 전주에서 5·18묘지를 찾아온 최성현(49) 씨는 “아이들이 5·18을 알고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애들이 훨씬 어릴 때부터 해마다 찾아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립 5·18민주묘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5·18묘지를 찾은 추모인파는 전날까지 4만707명을 기록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영광예술의전당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영광예술의전당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영광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영광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영광예술의전당 입구에서 추진위원과 내외빈 학생과 군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무형문화재 17호 우도농악 최은미, 최용 선생님의 추모공연을 시작으로 추모시를 장은영 추진위원이 낭독해 민족의 비극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명예 회복을 위해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엔 세워진 영광 평화의 소녀상은 다른 지역과 달리 순수 동 재질로 140cm 높이의 맨발로 앉은 채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두 손에 든 좌상 형태로 제작됐다. 희망과 이상을 상징하는 파랑새, 평화를 지켜보는 비둘기, 푸른 하늘을 응시하는 소녀상은 어두운 시대에도 희망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영광군의 지도를 형상화해 새겨진 비문에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았다. 평화의 소녀상을 조각한 이은희 작가는 “동상 제작에 직접 참여를 하니 마음이 몽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평화의 소녀상에는 무엇보다도 당당함과 자신감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희망을 찾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아이들에게도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소녀상 건립에 군민들의 참여도 의미 깊다. 영광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초부터 지난달 30일까지 82일 동안 학교와 기업, 단체 등 14여 곳과 1,534명의 학생, 군민 등의 뜨거운 관심 속에 4500만원을 모금했다. 원복성 추진위원장은 “국가가 힘을 잃고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은 일본 제국주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영광예술의전당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영광 평화의 소녀상'이 지난 9일 세워졌다.

의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징용으로 희생된 분들의 고통을 피하지 말고 우리의 역사 중 일부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일본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는데 영광을 대표하는 청년단체로서 영광청년회의소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영광청년회의소의 회장으로서 소녀상 제작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영광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는 향후 소녀상 관리를 위한 공청회, 역사 교육사업, 홍보활동, 청소년사업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남 영광=김남중 기자

천주교광주대교구 정평위 5·18기념 도보순례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는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도보 순례와 기념 미사, 촛불행진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지난 12일 인권평화특강을 시작으로 13일 정신 계승 도보 순례를 진행했다.

14일에는 남동 5·18기념성당에서 김희중 하지노 천주교광주대교구 교구장이 직접 기념 미사를 집전하고, 남동 5·18기념성당에서는 18일부터 이틀 간 5·18헌법전문수룩기원 바자회를 진행한다. 정평위는 한반도에 온전한 평화가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도보 순례의 경우 직접 전화신청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정평위는 많은 신

자 뿐 아니라 비신자들도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양수 프란치스코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은 “국립 5·18민주묘역, 민족민주열사 묘역, 5·18기록관, 옛 전남도청 등 5월 역사 현장 순례 일정을 통해 5·18에 대한 역사성과 공동체 의식을 이해하고 기억하며 5월의 진실이 모든 지역으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광주시, 미취업 청년들 월 40만원 지원 “생활비 받고 구직활동 하세요”

광주시가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생활비를 지원하는 ‘광주청년 드림수당’ 참여자를 다음 달 1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청년 드림수당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매월 4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1차 500명, 2차 600명으로 나눠 올해 모두 1천100명에게 드림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조건은 광주에 사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학교졸업 후 미취업 청년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구원,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 각종 정부사업 현재

참여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광주청년드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광주시는 가구소득·미취업기간·구직활동 계획서 등을 종합 심사한 뒤 6월 12일까지 최종 선정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16일 오리엔테이션을 할 예정이다. 이승철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13일 “광주시 조사 결과 광주지역 미취업 청년이 월평균 40만 원의 생활비를 쓰고 구직준비 기간도 12.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지원 성과를 분석해 내년 이후 정부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보성군, ‘참다래 인공수분’ 기술 지원

보성군은 참다래 개화기를 맞아 과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수분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참다래는 바람에 의한 자연수분은 거의 되지 않아 반드시 인공수분을 해주어야 한다. 특히, 비닐하우스나 파풍망시설은 인공수분이 더욱 필요하다. 군은 안정적인 과일 생산을 위한 인공수분을 위해 참다래 재배 160여 농가가 지난해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꽃가루에 대해 발화율 검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달까지 중점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발아율 활력화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방으로 우량 꽃가루를 인공수분용으로 사용하도록 현장지도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물 수분시 이용되는 증류수는 농가에 희망할 경우 매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참다래 인공수분을 분석하고 있다.

참다래 물 수분은 증류수 4 l 에 현탁액 200ml, 꽃가루 16g, 색소 0.8g 비율로 혼합하여 믹서로 잘 섞어 암꽃이 핀 후 3일 이내에 분무하고, 1차 분무 후 2~3일 후 2차 분무를 하면 기존 가루수분에 비해 노동력 절감효과와 수정률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인공수분 방법이다. /전남 보성=문성환 기자 m8527188@



박용구, 윤진상, 백남길, 한상원

광주시, 광주시민대상 수상자 4명 선정

광주시는 13일 2018년도 광주광역시민대상 수상자로 사회봉사 분야 박용구, 학술 분야 윤진상, 체육 분야 백남길, 지역경제진흥 분야 한상원씨 등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대상 수상자인 박용구(65) 광주시공무리봉사회 회장은 40년 넘게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차량봉사활동을 펼친 공로가 인정됐다. 학술대상 부문의 윤진상(63)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2003년 발표한 치매 관련 논문이 ‘신경학-신경외과-정신의학 저널’ 표지논문으로 선정되고 한국의 임상수면의학 개척하는 등 학술적 성과가 뛰어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체육대상 부문의 백남길(64) 광주시체육회 부회장은 체육회 통합 추진 과정에서 통합추진위원장으로 62개 종목 45만

동호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으며 활발한 스포츠 교류활동을 통해 전문체육 분야의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됐다. 지역경제진흥대상 부문의 한상원(64) 다스코(주) 대표이사는 314건의 산업 지식 재산권을 등록하는 등 신기술개발에 주력하고 광주·전남권의 협력업체와 지속적인 상생노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일자리 고용창출에 기여한 점이 인정받았다. 광주시민대상은 사회봉사, 학술, 예술, 체육, 지역경제진흥 등 5개 분야에서 광주시의 명예와 지역발전에 공헌한 이에게 주는 상으로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 134명과 8개 단체에 수여됐다. 올해 시민대상 수상자 시상식은 21일 제 53회 광주시민의날 기념식에서 열린다. /전남 광주=김남중 기자